

사회

부모 살해 패륜 20대에 사형 대신 '20년 참회刑'

광주지법 목포지원 "아버지의 장애 어머니 학대·친족들 탄원 참작"

말다툼 끝에 자신의 부모를 둔기로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해 사형이 구형된 20대에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패륜적이지만 가족간 뿌리깊은 갈등에서 비롯된 점과 선처를 바라는 친족들의 탄원 등을 참작해 유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양형권)는 28일 아버지와 딸다툼 중 헛간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25년간 자신을 길러준 부모를 살해한 것은 지극히 패륜적인 대다 범행 후에는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잔혹한 점에 비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대화만 단절된 아버지가 장애인인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 등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불행감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폭행을 당하자 충동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주

변의 탄원 등을 참작해 유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밤 11시께 영암군 영암읍 자신의 집에서 공무원인 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데 격분해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살해하고, 1시간 뒤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귀가 후 어머니가 울고 있어 아버지한테 '그만 좀 괴롭히라'고 따지자 '너나 잘하라'며 뺨을 때려 찾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타로날까 두려워 어머니도 살해

했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끔찍한 범행에 대한 대가과 반인륜적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못된 아들 입건 어머니 뺨 때리고 아버지에게 컵 던져

광주남부경찰은 28일 술에 취해 노부모에게 주먹을 휘둘른 김모(53·무직)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87)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어머니(77)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에게 부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기자 kimho@

무섭다 '꽃뱀 부부'

아내 성관계 유인하고 남편 현장 덮쳐 "1억 내놔"

지난 3월 22일 담양군 대전면 김모(여·45)씨의 집. 김씨는 남편(49)과 싸고 '○○상점 대표'라고 적힌 명함의 주인 박모(51)씨에게 "친구야, 남편은 애인과 놀러가는데.. 우리도 애인 구해서 가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명함은 며칠 전 남편이 길에서 우연히 주워온 것이었다. 김씨를 알지 못하는 박씨는 "(문자를) 잘못 보낸 것 같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김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안하다. 이것도 인연인데, 차나 한 잔 마시자"라며 박씨에게 접근했다.

다음날 김씨는 공산구 첨단지구 한 커피숍에서 만난 김씨와 박씨는 얘기를 나눈 뒤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아내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덮친 김씨의 남편은 "아내와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박씨에게 1억원을 요

구했다.

결국 박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추후에 건네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 부부의 합박은 날로 심해졌고, 이를 견디다 못한 박씨는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다.

김씨 부부의 공갈 행각은 4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이들은 재력 있는 사업가를 몰색한 뒤 도박장으로 유인해 데려가는 사기도박단의 모집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 1월 초 사기 도박을 하다가 구속된 공범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과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김씨 부부에 대해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운전병 강제추행 혐의 현역 해병대 대령 구속

현역 해병대 대령이 운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운전병 이모(22) 상병을 추행한 혐의로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발부했다.

이 상병측은 오 대령이 지난 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영내 관사로 이동하던 중 이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겨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이 상병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와 관리구제도 요청했다. 이후 인권위는 조사를 벌여 이 상병의 진술과 정신과 전문의 소견 등을 토대로 오 대령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희뉴스

이주여성 성매매 알선 4명 입건

광주경찰, 성구매자 8명도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8일 이주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구모(32)씨와 성매매 여성 이모(43·중국 출신 귀화자)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 구매자 김모(38)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8월

초개 광주시 서구 삼촌동 모 건물의 지하 2층에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이씨 등 이주여성 3명을 고용, 하루 평균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126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구씨는 불법 전단지 등 4명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 구매자 김모(38)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8월

심야 편의점 연쇄강도 20대 영장

순천경찰

순천경찰은 28일 심야시간대 여성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만을 골라 금품을 빼앗아 온 박모(25)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일 새벽 4시20분께 순천시 남정동 한 편

의점에 침입, A(여·23)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만원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93만원을 빼앗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편의점 내 CC(폐쇄회로)-TV에 찍힌 화면과 인근 PC방 접속 흔적 등을 추적한 끝에 강원도 정선으로 달아난 박씨를 지난 27일 검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광주 양동 여인숙 객실

50대 여성 숨진채 발견

지난 27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 모 여인숙 2층 객실에서 이 여인숙에 투숙해있던 이모(53)씨가 방바닥에 엎드려 숨져있는 것을 여인숙 주인(64)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주인은 경찰에서 "이씨가 오전에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할 것 같은데 4만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뒤 방문을 열어봤는데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이씨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주인에게 빌린 4만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술을 좋아했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지인들의 말에 따라 지병으로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이재민들에 보낼 구호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 및 직원들이 28일 지사 구호품 비축창고에서 기습 호우와 태풍피해를 대비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재난응급구호품 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구호품은 의류, 담요, 숙우, 세면도구 등 응급구호품과 쌀, 부식, 취사용품 등 600세트가 마련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前 수산기술소 목포지소장 등 2명

연구비 등 수천만원 횡령 입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8일 연구개발사업 자체비를 부풀려 돈을 빼돌린 전 수산기술사업소 목포지소장 이모(52·5급)씨와 전 직원 배모(38·7급)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목포지소가 추진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자체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연구비 1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양식이 불가능한 어종에 대해 양식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 연기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은 28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교과부로 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결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중징계 의결 요구된 공립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정당 가입 등으로 징계요구를 받은 교사는 공립 2명과 사립 1명 등 모두 3명이며 사립교사 징계는 학교법원에서 행사한다.

한편 장란재 교육감은 해당 교사들의 징계에 대해 이들이 낸 돈이 정당 후원금 성격으로 소액인 점 등을 고

Grand open

광주 최고 시설 스크린 골프장

자이언트골프존

062) 521-0071

- 최머드 스크린의 최첨단 스크린 / 최상의 장비
- 최첨단 시설과 서비스 / Taylor Made 클럽 판매
- 30여명의 내셔널 주니어코치